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름다운 여행자

어느 여행 가이드의 이야기에서

파리 투어를 할 때였습니다.  
 비교적 젊은 커플들 사이에 칠순 노부부가 끼어 있어  
 사람들은 시종 이 노부부와의 동행을 불편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일정에 차질을 줄게 불을 본 듯 뻥 한 일이었으니까요.  
 더구나 할머니는 약간의 치매증상까지 있어  
 가끔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나타나야할 시간에 나타나지 않아 애를 태우기도 하였습니다.  
 "아유, 왜 저러신대, 쫓....."  
 "에이, 일정이 또 꼬이게 생겼군"  
 일행의 불만은 점점 커갔고, 할아버지는 젊은 동행들에게  
 미안해서 몸 돌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소동을 겪고 난 날 저녁.  
 할아버지는 일행을 한 노천카페로 모두 초대했습니다.  
 귀찮음 반 호기심 반으로, 공짜 커피나 마시자고 모여든 일행 앞에  
 할아버지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 집사람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흔 살이 되는 해 파리에 꼭 가보게 해 주겠다고 말이죠."  
 젊은 시절. 파리 유학을 꿈꾸던 재원이었다는 할머니,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를 너무나 사랑해  
 차마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못난 남편 만나 고생고생 살았는데,  
 이제 오뎅하게 지낼 만하나까 덜컥 병이 들더군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시다 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이 집사람 생일인데....."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사연을 듣고 있던 커플들은  
 젖은 눈으로 노부부의 아름다운 여행을, 그리고 할머니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황혼의 파리 여행은, 장밋빛 미래를 기꺼이 접고 반려자가 되어준  
 할머니에게 할아버지가 주는 생애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학창시절의 영화▶ 황야의 무법자

그 시절에는 말을 타고 총을 쓰는 영화를 "서부 영화"라 불렀습니다. 그 중심에 존 웨인과 크린트 이스트우드 가 있었습니다. 찡그린 미간, 덩수룩한 수염, 총신이 길었던 권총, 대결할 때 뒤로 젖히던 망토.... 지금도 기억속에 남아있는 '황야의 무법자' 입니다. 무엇보다 "방랑의 휘파람" 주제곡은 지금 들어도 총잡이와 땅의 먼지를 스치는 을씨년한 바람이 그려집니다.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일어나 가슴에 붙였던 쇠를 보여주던 마지막 장면은 좀 유치했지만 악당을 물리친 용기에 박수를 친 어린시절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며 박수도 치던 그 시절, 새삼 그립습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13:35) <b>갈보리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44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5년 10월 23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기도

작자미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위험에 처하여서도 겁을 내지 말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통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옵시고  
 고통에 처하여서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싸움터에서 동조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옵시고

인생과 싸워서 이길 스스로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근심스러운 공포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내가 싸워서 이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걱정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내가 기쁘고 성공할때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게 마옵시고  
 매일매일 내가 슬프고 괴롭고  
 남이 나를 핍박하고  
 내가 배고플때  
 하나님야  
 내 손목을 꼭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따라 행하기▶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다

◀인품따라 행하기▶

앞에서도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  
 돌고돌아  
 당사자 귀에 들어기더라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갈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7장	다 갈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49 (빌 2장)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359장	
기 도 Pray		정희자 권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인 도 자
성 가 대 찬 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박성천 목사
찬 송 Hymn	455장	다 갈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갈 이
축 도 Benediction		박성천 목사

(예배를 마치고 본당 뒷편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 ◆10월의 예배위원◆

일자	기 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안내
2	최재학	박영태	조재근, 방영아	<현관> 김종건
9	현석호	박재양	교역자	이광희
16	김교섭	박정자	김용석, 최신덕	
23	정희자	박태원		<본당> 노은숙
30	김순자	박하림	김상덕, 박제란	정희자

### ◆10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2	이웃교회참석, 수요예배(5) 구역예배(7일)
9	믿음의 어머니기도회(11)
16	
23	
30	이삭줍기주일, 당회, 선교회

2005년 교회생활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1. 성경 1독만 하기(하나님 사랑)	
2. 전도하지 말고 대신 친절하자(이웃 사랑)	
3. 처음 만난 날 처럼(교우사랑)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저녁 2시	

내일은(24일) 모처럼 맞는 휴일입니다(Labour Day). 가까운 교우가족끼리, 가까워지고 싶은 교우가족끼리 운동을 하거나 식사를 하며 모처럼 즐겁게 보내면 어떨지요?

- 교우소식
  - \*김성국 목사. 금주 금요일(28일)에 귀국예정.
- 11월 셋째주일 "세례식"
  - \*14세 이상. 꾸준히 교회출석 1년이상(타교회 포함)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교우께서는 신청하여 주십시오.
  - \*"기초신앙반" 이수자, 혹은 참석교우는 세례문답이 면제됩니다.
- 성경공부
  - (1)기초신앙반 <일시> 매주 목요일 저녁 7:00. 교회 유아실 <이태한 목사>
  - (2)목적 있는 삶 <일시> 매주 금요일 저녁 7:30 <박성천 목사>
- 청년부의 "단기선교를 위한 선교비용 모금 Sausage Sizzle" (\$2)
  - \*우리 어른들께는 '저서 Sausage'를 드시는것이 우리 문화가 아니였기에 아직도 어색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Sausage Sizzle이 문화의 문제지만 생존의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찾아가려는 우리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 ◀착한 시인들▶ 우리가 눈발이라면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뼛쭈뼛 훑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말자

세상이 바람불고 춥고 어둡다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위에 들는  
새살이 되자